

2011년 중동의 시민혁명과 SNS의 정치적 매개역할

조희정 | 국회입법조사처

이 글은 2011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발생한 중동의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치매개 역할을 논증한다. 일상적인 상태에서의 매개기능과 달리 혁명기와 같은 정치적 급변기에, SNS는 집단행동과 의제 폭발의 촉매 플랫폼(catalytic platform)으로 역할한다. 중동혁명에서 SNS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용론과 필요론 등의 논란이 제시되었지만, 두 가지 입장 모두 정치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개작용에 대한 논증이 부족하며, 결과적으로는 SNS 폼하론과 무용론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 글에서는 중동혁명에서 SNS 역할에 대한 과정분석을 통해 SNS가 소셜네트워크화, 융합네트워크, 집합적 여론형성이라는 중첩적인 세 층위에서 정보·행위자·의제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의 강한 유대 속성을 증폭시킴을 강조한다. 정치 목적만큼 수단도 중요하며, SNS를 단지 도구적 수단에 한정하며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유용한 매개체로 평가함으로써 정치변화에 있어서 SNS 미시정치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SNS는 혁명의 조건이 아니라 혁명 가속화의 조건이기 때문에 정치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단위가 될 수 있으며, SNS 역할에 대해서는 스마트한 물결로서 SNS의 매개적 사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SNS의 매개정치'가 된다는 것이 핵심 결론이다.

주제어: 중동시민혁명, SNS, 튀니지, 이집트, 매개정치

I. 문제제기

이 글은 2011년 초반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된 시민혁명 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정치적 매개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기술에 의한 사회변화 가능성을 논증한다. 민주국가의 일상적인 사회상태에서 SNS는 정보유통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안정적인 매개(stable media) 기능을 수행하

지만 권위주의국가에서 혁명과 같은 정치적 급변기에는 그 모든 정치적 매개보다 앞선 폭발적인 혁신적 매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집단행동과 의제폭발의 촉매 플랫폼(catalytic platform)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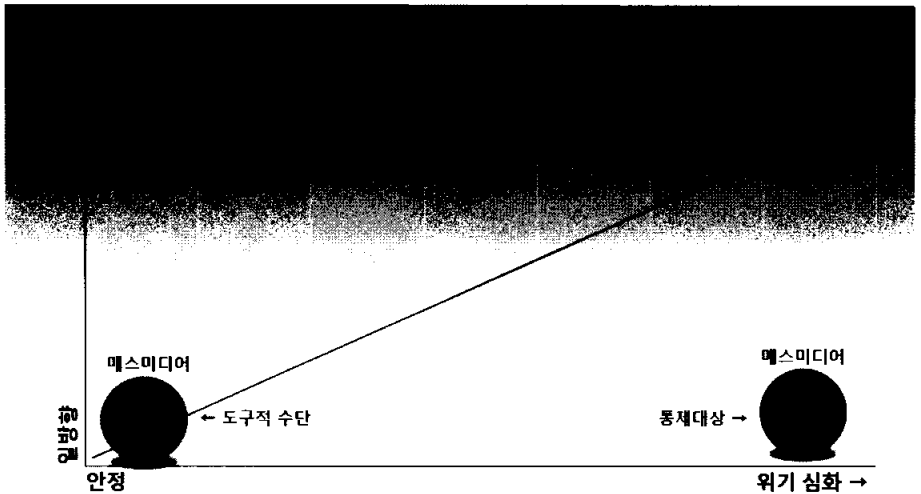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로써 SNS는 2009년 이란 혁명에서부터 시작하여 2011년 중동 혁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된 혁명의 플랫폼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SNS의 역할에 대해서는 'SNS의 영향력이 혁명을 야기하였다', 'SNS가 아니라 광장에 모인 다수 시민의 위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SNS가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서구 국가에서는 왜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는가'라는 등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즉, SNS의 역할이 지배적이라는 'SNS 필요론'에 대하여 SNS보다 중요한 요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굳이 SNS만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SNS 무용론(無用論)'과 같은 논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은 결국 SNS의 도구적 관점에만 매몰된 나머지 SNS 외의 다른 정치경제적 변수들의 효과를 폄하하며 한편으로는 독립변수로서의 SNS만 강조한 나머지 SNS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순적 정치효과로 귀결될 수 있다. SNS가 도끼나 망치와 같은 도구라 하여도 사회적인 쓰임새가 충분히 다양하게 다를 수 있다는 사용 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됨으로 인해 결국 SNS만 없으면 세상이 평온해질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까지 비약될 수 있는 것이다.

중동의 장기집권 독재자 축출을 통한 민주화 달성은 그 자체로 큰 국내외의 정치적 의미를 획득한다. 그 과정에서 활용된 SNS의 도구성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의 역할에 대한 사실 규명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에서 정보·사람·의제의 개방성과 연결성이 변화상태의 그것과 다른 다양한 속성이 있음을 논증해야 한다. 나아가 도구적 한계를 극복하고 네트워크의 속성, 특히 매개성을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의 정체성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프리 골드팍의 지적처럼 정치에서는 그 목적만큼이나 수단도 중요하고(Goldfarb 2006, 5), 어떤 수단을 특정 시점에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미시정치(micro politics)에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네트워크 내에서의 SNS라는 수단의 적절한 활용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SNS 역할에 대한 평가는 기술 가치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기술이 작동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평가하였다. 인터넷의 보편화 이후 상업화와 자유주의의 공진화에 의해 급진적으로 추동되고 있는 현재의 기술 발전 동향은 단계별 변화나 기술이 사회에 깊이 개입되는 국면마다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논쟁에서는 SNS 영향에 대한 반복되는 의견만 범람하고 있을 뿐, 누가·어떻게·왜 SNS를 이용했고,

〈표 1〉 안정과 위기 시의 미디어 역할 비교

구분	매스미디어(일방향)	SNS(쌍방향)
안정	A(안정화 수단) - 도구적 수단(예: 홍보)	C(혁신의 수단: 개방, 공유, 참여) - 네트워크 확대의 도구(예: 선거, 시민운동)
위기	B(통제) - 통제 대상(예: 독재)	D(통제, 실천) - 통제 대상 vs.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예: 혁명)



〈그림 1〉 안정과 위기 시의 미디어 활용 변화

그것이 정치변화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한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심도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1〉은 미디어의 방향성과 정치변화의 국면간에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첫째, 안정적인 사회상태(A와 C)에서 매스미디어나 SNS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구현하며 정부나 시민에게 홍보를 위한 도구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SNS는 참여·공유·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위기 시(B와 D)에는 정부에게 있어서는 매스미디어와 SNS 모두 가장 먼저 통제해야 할 대상이 된다. 다만 매스미디어의 통제는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¹⁾ SNS는 네트워크를 통한

1) 정부가 매스미디어를 소유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통제가 쉽다.

저항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다.²⁾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글에서는 우선 제II장에서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존 논쟁에서의 쟁점 및 한계를 정리하고 과정 중심 SNS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제III장에서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치사회와 SNS 사용 환경의 특성을 정리하여 이번 혁명의 정치사회와 기술적인 배경을 알아본다. 이어서 제IV장에서는 SNS를 통한 정치매개와 정치변화의 관계를 SNS 매개정치의 3단계 프레임을 활용하여 튀니지와 이집트 시민혁명의 주요 시기별 전개과정에 따라 사례설명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권위주의 정부의 규제가 나타내는 특성을 대비하여 살펴본다. 그리하여 결론으로, SNS는 혁명의 조건이 아니라 혁명 가속화의 조건이며 따라서 SNS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치변화에 있어서 단순한 도구적 사용이 아닌 스마트한 물질로서 SNS의 매개적 사용이 중요하며 이것이 'SNS 매개정치'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II. 사회운동과 SNS 영향력에 대한 논쟁

1. SNS의 다차원적인 특성

가장 대표적인 SNS는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을 하나의 SNS로 포괄하기에는 양자간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 우선, 페이스북은〈표 2〉에 정리한 것처럼—트위터보다 강화 기제가 강하다. 트위터가 속보처럼 설새없이 의제를 던지는 미디어라면, 페이스북은 속보성보다는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의 기능을 가지며, 트위터는 자기 정체성을 수렴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분산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페이스북에서는 자기 정체성이 수시로 나타나 프로파일링(profiling)이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³⁾

메시지 전달 형식은 트위터의 단문과 페이스북의 장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트위터의 경우 너무 많은 신속한 트윗(tweet)때문에 다른 트윗으로 인한 노이즈(noise)가 끼어들어 맥락을 종종 단절시키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노이즈가 있어도 본래의 장문을 쓸 수 있는

- 2) 물론 이와 같은 구분또한 이념형일 뿐 실제 사례에서의 구조는 훨씬 복잡하다. 즉, 〈표 1〉을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경우, 각 미디어의 상태 사이에는 대단히 유동적인 변화의 여지가 있다.
- 3) 이와 같은 소비자 파악의 용이성은 각 서비스의 광고전략에서도 차이가 난다. 즉, 페이스북의 서비스 강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사용자 맞춤형' 광고와 친구 추천 서비스에 있다.

〈표 2〉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페이스북	트위터
기능	강화 기제	동원 기제
자기정체성의 정도	강함	약함
광고 효과	큼	약함
메시지 전달 형식	장문 (맥락 형성이 용이함)	단문 (신속한 트윗때문에 노이즈가 있는 타임라인)
속성	의제 중심이 맥락 형성	속보성, 단순 전달
비유	100분 토론	9시 뉴스

서비스의 특성상 일관된 맥락(context)을 구성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트위터는 '9시 뉴스'와 같이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리트윗(RT)나 해시태그를 통해 정보확산에 기여하는 편이며, 페이스북은 그룹 서비스 등을 통해 '100분 토론'과 같은 의제 생산 맥락을 형성한다.⁴⁾

2. 기존 연구의 한계

1) 온라인 집단행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

인터넷 집단행동과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첫째, 기존 사회운동과 온라인 사회운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 및 논증, 둘째, 온라인 집단행동의 발생 원인,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의 특징, 유형 등에 대한 사례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첫째 부분의 연구로는 인터넷 활용이 집단행동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기술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Barber 1998; Poster 2001; 윤영민 2000; 정연정 2000; 황용석 외 2000), 둘째 부분의 사례연구로써는 카스텔(Castell 2001, 2004), 백옥인(2001), 임정수(2003) 등의 논의가 있다. 시기적으로는 인터넷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전반부의 연구경향이었던 이후에 나타나는 연구는 사례연구로 이루어지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이론적 논의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내에서 정치참여 및 집단행동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 때문에 중동의 시민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혁명 과정에서 인터넷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4) 현단계에서는 이러한 비유가 과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트위터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가진 페이스북에서 '그룹' 서비스와 같은 것은 이미 '100분 토론'의 기능을 수행한다.

2) SNS 필요론과 SNS 무용론

이번 중동혁명에서의 SNS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무용론 중심의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과 필요론 중심의 클레이 서키(Clay Shirky)의 상반된 주장이 주목받았다.

(1) SNS 무용론

먼저, 무용론 중심의 말콤 글래드웰은 『뉴요커(*The New Yorker*)』에 “작은 변화(Small Change)”라는 제목으로 기고되었는데, 관계고리가 약한 SNS가 혁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 강한 연대가 혁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에도 혁명이 있었고 그 핵심에는 시민이 있었던 것처럼 광장에 모인 시민이 혁명을 이루었다는 것이다(Gladwell 2010/10/4). 이와 유사하게 칼럼니스트 기든 라흐만(Gideon Rachman) 또한 “이집트 혁명에 대한 감상(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Egypt)”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기고문에서 이집트 국민의 44%가 문맹 또는 반문맹 상태에 놓여 있고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achman 2011/2/14). 따라서 이집트 혁명은 단지 인터넷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독재와 부패에 대한 분노, 중산층의 좌절과 빈민들의 절망 등 좀 더 보편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그 역시 글래드웰처럼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 시대에 SNS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올리시스 메지아스의 경우는 미디어를 혁명의 주역으로 평가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끈 신발이 트위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중동 혁명을 ‘신발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기술에 의한 혁명 가능성은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Mejias 2011).

그러나 SNS 무용론에 의하면 혁명의 주체로서 피플 파워(people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20여 년간 축적된 인터넷과 SNS에 의한 모든 사회현상을 무화시킬 수 있다. 약한 연대의 힘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글래드웰의 강조는 수많은 SNS가 약한 유대를 통해 오랜 시간 평판과 신뢰를 누적하고 변화의 원동력이 되거나 그 확산범위 또한 크다는 사실, 즉 SNS는 혁명의 조건이 아닌 혁명 가속화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약한 유대를 유지하는 강력한 허브(hub)의 힘도 폄하하는 것이다.

(2) SNS 필요론

다음으로 필요론 중심의 클레이 서키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를 통해 말콤 글래드웰의 의견에 반박했는데, 그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SNS의 확대는 10년 내 중국 공산당의 붕괴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Shirky 2011/1). IT 기술자,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이며 대안 미디어 ‘글로벌 보이즈 온라인(Global Voice Online)’의 설립자 에단 주커만 또한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기고문 “첫번째 트위터 혁명인가(The First Twitter Revolution?)”에서 이번 혁명을 ‘트위터 혁명’으로 명명하였다(Zuckerman 2011/1/14). 이어 오바마 대통령 역시 혁명과정에서 사용된 모바일 기기의 위력을 강조하며 ‘M 혁명(Mobile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포레스터(Forrester)의 분석가 오지 레이는 “소셜 미디어가 이집트 국민들의 봉기를 시작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 불씨가 소셜 채널로 이어지자, 비용없이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능력이 이집트 국민들의 시위가 퍼지고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Gaudin 2011/6).

조셉 나이는 이와 같은 변화에는 두 가지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하나는 국가로부터 다른 주체로의 권력 이행(power transition)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확산(power diffusion)이라고 보았다.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는 연성 권력(soft power)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있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다양하고 많은 정보기술로부터 권력이 생산되고 확산되었다는 것이다(Nye Jr. 2011/2/18).⁵⁾

그러나 필요론은 혁명 내부에서의 SNS 역할에 대한 분석을 결여함으로써, 혁명의 독립 변수로 SNS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SNS 통제론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 SNS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는 정치적 역리가 나타날 수 있다.

3) SNS 매개론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인터넷 통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모로조프(Morozov)의 경우는 정치변화 기저에 흐르는 변화보다 기술전략만을 강조하는 인터넷 기업의 수단 강조 전략을 ‘인터넷 중심주의(Internet Centrism)’라고 비판하

5) 나이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시능력과 통제 가능성과 정보 수집(Intelligence Collection)이나 스텝스넷(Stuxnet)의 이란 원전 공격과 같은 사이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경고도 제기하였다.

〈표 3〉 SNS 필요론과 무용론의 주요 내용과 근거 비교

구분	SNS 필요론	SNS 무용론
인물	클레이 서키, 에단 주커만, 오지 레이, 미국 정부와 정치인	말콤 글래드웰, 기든 라흐만, 올리시스 메지아스, 크리스토퍼 로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적 역할 • 혁신지향의 기술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외 다양한 변수들이 중요 • SNS는 특정 계층만 제한적으로 사용 • 피플 파워 강조
근거	비용 우위, 표현의 자유와 연대의 힘	기술이 없던 과거의 시민혁명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하지 않음 • SNS 통제론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SNS의 경험 사례를 폄하함 • SNS 무용론 야기

였다. 다른 축소론자에 비해 사례 이해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그는 기업 상품으로써의 페이스북과 혁명 플랫폼으로써의 페이스북을 구분하는 정도의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적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존 팰프리(John Palfrey) 또한 SNS의 매개역할을 '지원 도구(supportive tool)'로 평가하고 혁명과과정에서 증폭(amplify)하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Rhoads 2011/2/12).

따라서 SNS 무용론과 필요론이 강조하는 결과 중심의 관점은 과정 중심의 분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인터넷과 SNS의 참여·공유·개방 정신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현실화되었으며, 국제정치무대에 중동 지역이 새로운 민주화 물결의 성지로 부상하는 데 기여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혁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치 변화 또한 정치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 과정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변화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정치과정에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필요론과 무용론 이전에 SNS가 단지 경제나 문화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 복합적인 '정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적 태도 변화에 관련된 의제설정(agenda setting) 이론이나 이용자의 행동적·행위적 변화와 관련한 점화효과(priming effect)이론과 같이 인터넷 매개커뮤니케이션이론을 SNS 매개이론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II.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치사회와 통신 환경

1.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

튀니지와 이집트 정치변화의 배경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복합적 환경에 의해 구성된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장기집권 독재자와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이번 시민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다. 중동 이슬람 국가의 장기집권 독재자들은 평균 30년 이상 강압적으로 지배해왔고, 그들의 통치 하에서 국민들은 서구와 민주화를 열망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빈곤과 실업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지역들에서 식량 가격

〈표 4〉 튀니지와 이집트의 사회 특징과 통신 환경 비교

구분	튀니지	이집트
전체 인구(2010년)	10,589,025명	80,471,869명
평균 연령	29.7세	24세
도시인구	67%	43%
문자해독률	74%	71%
교육비 지출	7%(18위)	3.8%(113위)
GNI per capita(2009년)	7,820 달러	5,690 달러
실업률	14% ⁶⁾	9.7%
유선전화(2009년)	1,279,000명(69위)	10,313,000(21위)
국영 TV/라디오	2 / *	2 / 8
민영 TV/라디오	1 / 3	* / 6
무선전화(2009년)	9,754,000명(65위)	55,352,000(19위)
인터넷 호스트(2010년)	490개(182위)	187,197개(67위)
인터넷 사용자(2011년)	3,600,000명(60위)	17,060,000(21위)
인터넷 성장률(2000-2010)	3,500%	3,691%
페이스북 사용자	200만 명	350만 명 ⁷⁾

출처: CIA(2010. 7); Internet World Stats(2011); SocialBakers(2011); World Bank(2011).

6) 튀니지의 25세 이하 청년층과 지방의 실업률은 2배가 넘는 40%에 달한다.

7) 18~34세 사용자가 78%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층의 이용률이 높다.

은 평균 20% 이상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정치격변 국가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30%에 달했다.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에서 대졸자 7명 중 1명이 실직 상태이고, 이집트에서는 전체 실업률이 8.4%, 25세 미만의 실업률은 28%에 이르렀으며, 전체 국민의 40%가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사회문화적으로는 1960~7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가 있다. 이들은 사회안정화⁸⁾ 이후 이슬람의 다산주의에 의해 막대한 규모의 인구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30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이다. 또한 젊은층의 높은 교육 수준은 사회변화에의 요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 되었다.

또하나의 사회문화적인 변수로는 이슬람의 세속화를 들 수 있다. ‘히잡 안의 리즈 위더스푼(Reese Witherspoon in a hijab)’이라는 묘사처럼 이슬람의 강한 종교적 원칙 하에서도 자유로운 서구 문화를 즐기는 이슬람 여성들은 ‘이슬람 세속화’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Shapiro 2009). 위성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구문화를 경험하고 동경해온 이들은 사회응집을 위한 종교의 기능과 자유로운 문화라는 세속화 물결이 이중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이슬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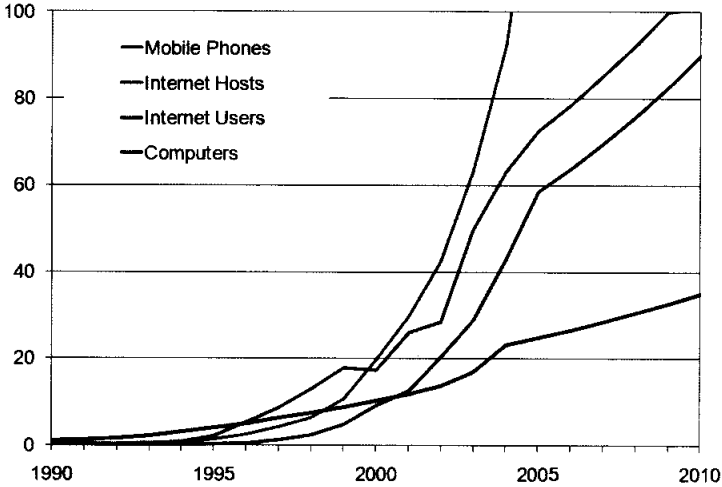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장기 독재로 인한 정치적 불만과 경제적 상황의 악화 그리고 서구 문화에 익숙한 높은 교육 수준의 새로운 세대의 출현은 중동의 변화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2. 통신 이용현황

양국 모두 평균 연령이나 도시인구와 문자해독률, 교육비 지출이 높은 편이다. 또한 통신 후발 주자 특성으로써, 유선보다는 무선 사용률이 높고,⁹⁾ 도시인구비율도 높다. 특히, 2005년 전후부터 통신시장의 양적 확대는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휴대폰의 증가율은 완전히 정확한 수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 대의 휴대폰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망내 할인 폭이 클 경우에는 한 명이 여러 개의 심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집계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홍일선 2011/3/30,

8) 당시의 사회안정화는 군부 쿠데타 이후 이루어진 상대적인 안정화를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원유 수출에 의한 경제적 호황기로 상징되는 안정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9) 튀니지 시디부지드에서 시위대의 구호 중의 하나는 “한 손에는 돌을, 한 손에는 핸드폰을!”이었다.



출처: 필리프 하워드(Philip N. Howard 2011, 18).

〈그림 2〉 중동지역의 정보통신환경 추이

4. 그러나 휴대폰 보급의 급신장 추세는 진행되고 있으며 이 모든 통계가 뒷받침하는 것은 SNS 축소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튀니지와 이집트가 그렇게 교육후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 중동혁명 사례에서는 단순히 양적인 의미에서의 통신이용률 증가 추세뿐만 아니라 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즉, 통신사용자층의 계급적 특성으로서 이들 국가의 통신요금을 고려했을 때 상류층이 주로 사용했다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이들 상류층이 변화를 주도했다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집권의 독재자가 상류층에 대한 정치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이들이 가장 먼저 반발의 핵심 주도세력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IV. SNS를 통한 매개와 정치변화

1. SNS 정치매개작용과 정치변화

좀 더 상세히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 이전, 초기, 심화 3단계를 네트워크 속성의 구성요

〈표 5〉 튀니지 혁명의 전개과정과 각 단계 네트워크의 활동

구분	주요 정치적 사건	소셜네트워크화 단계	융합 네트워크 단계	집합적 여론형성 네트워크 단계
혁명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부터 인터넷 검열 • 2010년 여름부터 정부는 활동가들의 G메일, 야후, 핫메일, 페이스북 계정 등에 피싱 공격을 하여 암호를 빼내고 계정 봉쇄(2011년 1월 3일에도 피싱 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키릭스의 튀니지 정권 부패에 대한 미 대사관 보고서 제공 • 2010년 4월 슬림 아마무(Slim Amamou, 2011년 1월 22일 현재 팔로어 1만명)가 ReadWriteWeb에 인터넷 비밀경찰 6백 명 활동에 대해 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투브: 분신지역인 시디 부지드 관련 동영상 3,000개, Nawaat.org는 시민들이 아랍어 '자유'를 몸으로 표현한 동영상 게재 • 슬림 아마무가 포스퀘어로 가입 사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페이스북 부단 • Tumileaks: Nawaat.org가 제작한 정부 부패 폭로 사이트 (튀니지판 위키릭스)
혁명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2월 17일에 시디 부지드(Sidi Bouzid)에서 분신한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med Bouazizi)가 1월 4일 사망함 • 5명 자살 • 경찰 진압으로 66명 사망 • 1월 6일 변호사 8,000명이 시위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17일 알 자지라가 부아지지 사건을 동영상과 함께 보도하여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함 • 1월 4일 추모 운동 • 트위터: 시위에서 사망한 '데깅의 순교자' 5명의 사진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투브: 분신지역인 시디 부지드 관련 동영상 3,000개, Nawaat.org는 시민들이 아랍어 '자유'를 몸으로 표현한 동영상 게재 • 슬림 아마무가 포스퀘어로 가입 사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waat.org의 조직화 활동 • 페이스북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 • 1월 3일 이집트 해커가 'Open Tunisia'라는 이름으로 튀니지 정부의 8개 사이트에 DDoS 공격
혁명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12일 군병력 배치, 야간통행금지령 • 내무부 장관 경질, 체포된 시위대 석방 • 1월 15일, 벤 알리 대통령(Zine El-Abidine Ben Ali, 1987-2011년) 퇴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투브: 정부의 홈페이지 폐쇄에 저항하는 'Free from 404' 동영상 • DailyMotion: 동영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그룹과 블로거들의 다양한 집단 활동

〈표 6〉 이집트 혁명의 전개과정과 각 단계 네트워크의 활동

구분	주요 정치적 사건	소셜네트워크 단계	융합 네트워크 단계	집합적 여론형성 네트워크 단계
혁명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년부터 비상계엄법(Emergency Law) 실시; 5명 이상의 집회 금지, 18,000명 체포 • 2005년부터 인터넷과 언론 탄압 • 2007년부터 인터넷 통제와 억압 강화 • 2008년 북부 산업지역 마할라(Mahalla) 섬유공장 노동자 파업(2008~2009년까지 800번 파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선거 후 정치블로거들이 유행(Kafaya, Wael Abbas, Al Dustur, Abdel Monem Mahmoud, Mustata Naggar 등),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성희롱 사건을 해외 알림 • 가장 정치적이고 강력한 블로거: 'Muslim Brotherh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부브: 2010년 6월 경찰 비리를 폭로한 칼레드 사이드(Khaled Said)가 인터넷 카페에서 연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그룹: 2008년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6 April Group'(7만 명 참가), 거리 시위 조직, 투옥 언론인 석방 운동 전개, 정치 토론 진행, 6만 명 참여 • 페이스북 그룹 'We Khaled Said': 구글 임원 고님이 2010년 6월부터 운영, 47만 명 참여
혁명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17~18일 3명 분신 • 1월 25일 반정부 시위 발발, 트위터 차단 • 1월 26일 아민 인사 20명 검거,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가택연금, 페이스북 차단 • 1월 27일 인터넷, 휴대폰 차단, 사망자 7명으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24~30일: 이집트, 예멘, 튀니지라는 단어를 포함한 트윗 수 130만 개(cf. 1월 16~23일 트윗 수 12만 개, Sysomos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몽 포록 시 검색 우회 프로그램 '울트라 서프(UltraSurf)'를 사용하여 인터넷 접속 • 유부브: '1월 28일 경찰의 폭력 진압하는 동영상'이 최초의 동영상으로 게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그룹 'We are all Khaled Said'가 제안한 1월 25일 집회; 8만 5천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힘

〈표 6〉 계속

구분	주요 정치적 사건	소셜네트워킹화 단계	융합 네트워크 단계	집합적 여론형성 네트워크 단계
혁명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28일 휴대폰 정상화, 금요 기도 회 후 최소 26명 사망, 엘바라데 이 가택 연금, 군 탱크 진입, 내부 부 장관이 수감되었던 무슬림 형 제단과 4월 6일 그룹을 사살하고 7천여 명의 흉악범을 풀어 악탈이 벌어짐 내무부 장관이 체포됨 1월 31일 군, 발포 안한다고 발표, 군부와 부통령도 대통령 하야 요구, 무디스의 이집트 신용등급 하향 2월 1일 백만 대행진, UN은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 2월 2일 인터넷 정상화, 100만 명의 최대 반정부 시위 2월 7일 구글의 고립 석방 2월 11일 무바라크 퇴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28일 자정부터 1시간 반동안 올라온 245,000건의 트윗 가운데 8%가 이집트에서 올라온 것 TweetDeckask HootSuite와 같은 제3자에 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트위터 이용 프락시 서버 사용 전화모뎀(가장 인기 높음), 해외 인터넷 서버에 접속 팩스 모르스 부호로 국제인터넷활동가단체 'Telecomix'에 소식을 전담하면 이를 다시 저장 향단체 'We Build'에 따르는 방식으로 소식 전달 집전화(구글 서비스 Speak2tweet)로 트위터에 소식 전달(2011년 1월 31일) '이집트 인터넷 자단을 우회하는 20가지 방법' 정보 제공 알 자지라는 CC를 적용하여 보도자료 공유, 트위터에 중계 이집트 거주 트위터러인 아이다 공유 트위터: 공식성명 'The Tweets Must Flow' 발표(2011년 2월 1일) 2월 3일 이집트 작가가 비디오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RT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튜브: '괴해자' 때문에 우는 고립의 모습 동영상' 등 이집트 혁명 관련 동영상 195,000개 업로드 알 자지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트위터 내용 생중계 (2,500% 시청률 상승) '중동의 신음(mideastunes.com)'에서 다양한 음악을 통해 표현의 자유, 사회변화 인권 등을 표현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공유 HyperCities project: 트위터의 과생서비스로서 도시내 30만개의 트윗을 분석하여 해시태그의 변화상황을 동영상으로 제공 2월 3일 전세계 연대서명 100만 명의 이름이 타히르 광장에서 스크린으로 전송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을 저항세력의 대변인으로,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15만명 이상이 친구로 등록함 2주 동안 페이스북에 3만 2천개 단채와 1만 4천개 페이지가 개설됨 광장에서의 구호 '우리는 인터넷을 하고 싶다(We Want Internet)' 이집트의 3인조 랩그룹 아라비안 나이즈(Arabian knights)가 인터넷 봉쇄 상태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래 반역(rebel)' 발표 2월 2일 시위 지지 해커 모임 (Anonymous)이 이집트 정보부와 집권 국민민주당(NDP) 홈페이지를 공격하여 서버 다운 2월 2일 인터넷 재개 후 페이스북 이용자가 500만 명으로 급증(후대 진화 접속자 100만 명) Mideastyouth(블로그 포털)의 토론방 2월 13일 구글 모더레이터 개설(토론방)

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5>, <표 6>과 같다.

먼저, 혁명 이전 네트워크의 특징은 정부의 통제와 이에 대한 반발로 규정할 수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부 모두 2005년 전후 정보화의 확장 시기부터 네트워크를 심각하게 규제해왔는데, 단순한 내용검열을 넘어 관련자에 대한 감시와 오랜 투옥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표현을 가로막고 일방적인 통제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집트의 경우 1981년부터 실시된 비상계엄법에 의해 18,000명을 체포했으며, 튀니지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활동가들의 온라인 계정을 피싱(phishing)하고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규제와 파괴 강도는 매우 컸다.

이러한 위기와 균열이 혁명 초기가 되면 몇 가지 사건에 의해 혁명 촉발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사건조차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안 미디어나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된다. 이 단계에서는 단지 규제와 저항이라는 양분된 갈등 구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생성과 유통이 훨씬 빨라지는 단계로 진화한다. 분신과 탄압 등의 심화는 추모운동으로 이어지고 추모인파가 늘어나 정부 퇴진의 메시지로 구체화되었다.

혁명의 심화단계가 되면 정부는 인터넷 차단이나 무력진압, 반체제 인사 감금, 국제사회의 관여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는 세 층위에서의 정보 확산 및 매개 그리고 의견결집 및 집단행동의 외연 확장을 통해 급속히 네트워크를 확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튀니지의 운동은 이집트의 도움을 받고 이집트의 운동은 튀니지의 도움을 받았으며, 정부의 네트워크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생성되고 공유되었다. 특히 이집트의 인터넷 차단이라는 초강수 정책은 국제사회 네트워크의 결집을 가져오는 커다란 계기로 작용하였는데, 인터넷의 자유주의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전세계의 네티즌의 주목을 받으면서 서구의 주요 ISP와 미디어들도 네트워크의 중요 행위자로 뛰어들게 되었다.¹⁰⁾

10) 2월 1일 일본 소프트뱅크는 이집트에서 문자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 SNS를 통한 매개정치(mediated politics)의 3차원

1) 마이크로 블로그의 소셜네트워크화 단계

트위터의 강점은 속보성이다.¹¹⁾ 신속한 트윗이 올라오면 사용자들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RT: Retweet)하며 이때 특정 주제에 대한 주제어(hash tag)를 달면 관련 트윗을 모아볼 수 있다. RT와 해시태그는 트위터를 통한 신속한 정보전파의 핵심기능이 되는 것이다. 이번 혁명 기간에는 트위터 타임라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련 해시태그¹²⁾가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시켰다. 단순한 의견개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제시에도 소식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공유하고, 중요 소식을 전달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알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트위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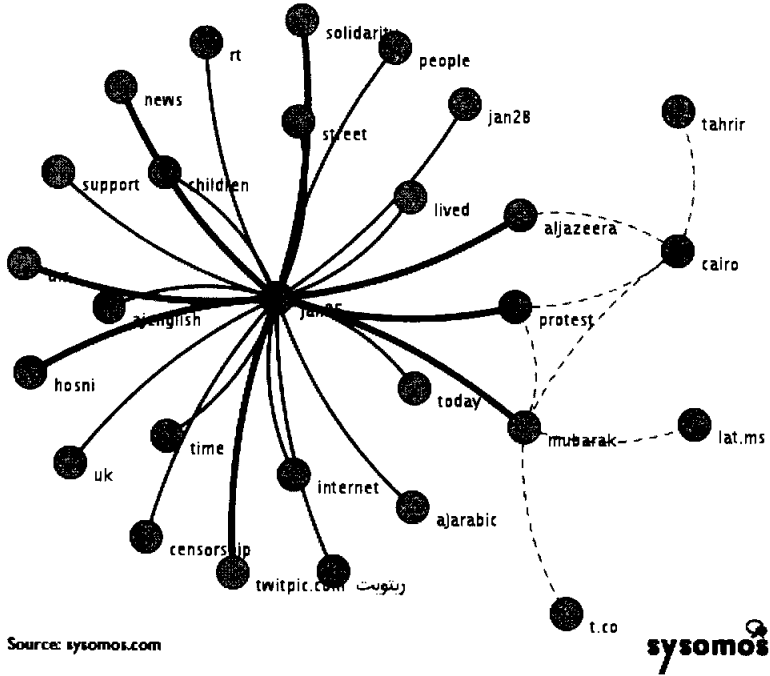
튀니지에서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한 소셜네트워크화는 뉴스 블로그를 통한 정부 부패의 폭로와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순교자들의 사진 등이 링크되면서 확산되었다. 즉,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의 특성 외에 RT나 링크 등을 통해 뉴스의 폭발력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시소모스(Sysomos)가 조사한 이집트 혁명 당시의 해시 태그 분포를 보면 주로 일시(1월 25일, 1월 28일, today), 지역 및 위치(타히르, 카이로, street), 인물(호스니, 무바라크), 매체(알 자지라, 타임, 인터넷, ajenglish, ajarabic, 뉴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집회사건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집회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써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중동혁명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알 자지라(Al Jazeera)의 온라인 활용 또한 매우 적극적이었다. 전세계에서 6천만 명이 시청하는 알 자지라의 경우 이번 혁명 과정에서

11) 트위터의 매체로서의 특성을 분석한 이은주가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은 관계의 비이명성, 메시지의 공개성,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의 혼종성이다(이은주 2011, 35-40).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트위터의 내재적 특성에 더하여 트위터의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알려질 수 있는 '속보성'을 제1의 특성으로 선택하였다.

12) 이번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해시태그로는 #bouazizi, #sidibouazid, #tunisia, #egypt, #tahrir, #censorship, #mubarak, #cairo, #jan25(이집트), #Feb3(예멘), #Feb5(시리아), #Feb12(알제리), #Feb14(바레인) 등이 있는데, 튀니지의 시디부지드 지역(#sidibouazid) 관련 트윗은 12월 27일 하루 동안에만도 시간당 2만 8천 개씩이 생성되었다.



Source: sysom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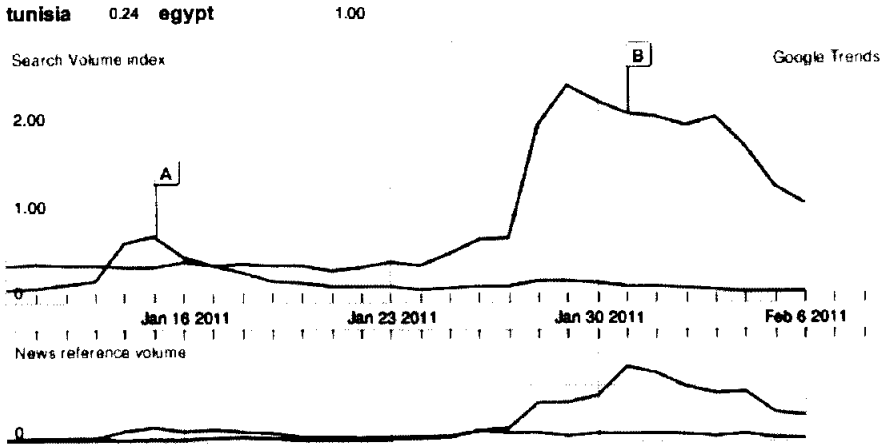
출처: 마크 에반스(Mark Evans 2011/1/31).

〈그림 3〉 이집트 혁명 당시의 트위터 해시 태그 분포

사실에 대한 신속한 보도,¹³⁾ 전문적인 해석, 배타적 저작권(copyright)이 아닌 저작권 공유(CC: Creative Commons)를 활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에 여러 형태의 콘텐츠를 유통시켰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콘텐츠 배포 전략은 드러나지 않은 폐쇄적 지역으로서의 이슬람을 세계 무대에 부각시킨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이에 비해 서구의 영어 미디어는 이미 튀니지 혁명 때부터 알 자지라보다 매우 늦은 반응을 했다. 〈그림 4〉는 구글의 검색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튀니지 사건 관련 검색이 정점을 이루고 있는 시점이 1월 16일, 이집트 관련 검색이 정점인 시점이 1월 30일이다. 튀니지의 대통령 하야가 1월 14일, 이집트의 대규모 시위 발생일이 1월 25일로 며칠 전에 일어난 것이거니와 온라인의 반응의 신속성이라는 속성을 감안하면 대단히 늦은 반응이라고

13) 이들의 보도는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 속보로 제공되었다. 이후 이집트에서는 1월 30일 알 자지라의 카이로 자국이 폐쇄되었고, 31일에는 기자 6명을 체포하기도 하였다.



출처: <http://www.ethanzuckerman.com>.

〈그림 4〉 서구의 중동혁명에 대한 반응의 시차

할 수 있다.

한편, 알 자지라뿐만 아니라 평화와 민주화 운동을 주로 보도하는 데모크라시 나우(Democracy Now!), 이미 유명한 진보적 블로그 언론인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 슬림 아마무¹⁴⁾의 튀니지 인터넷 감시 폭로계재로 유명한 미디어 리드라이트웹(ReadWriteWeb)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도 의제 생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혁명 이전에는 튀니지 혁명의 도화선을 제공한 위키릭스의 미대사관이 작성한 튀니지 정부부패 문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멀티 미디어 콘텐츠와 모바일 간의 융합적 네트워크 단계

두 번째 층위는 주로 다양한 콘텐츠를 메시업하여 재생산하는 융합적 네트워크화 단계로써 유튜브나 동영상 서비스 혹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정보전달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먼저, 유튜브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시티즌튜브(CitizenTube)’의 경우 이번 혁명 과정에서 분신자살, 고남의 우는 동영상, 시민들의 저항 모습, 경찰의 폭력 진압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이 제공되면서 혁명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블로그 포털이자 토론방인 ‘미드이스트유스(Mideastyouth)’를 운영하는 에즈라 알 샤페

14) 슬림 아마무는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하며 해적당(Pirate Party)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가 운영하는 ‘중동의 선율(mideastunes.com)’에는 중동 젊은이들의 문화적 요구가 다양한 형식의 음악으로 표출되었다. 페르시아어 랩, 팔레스타인식 트랜스 음악, 요르단식 펑크, 바레인식 알앤비(R&B) 등에서 사회변화,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메시지들이 전달되었다.

인터넷 차단시 인터넷 접속을 도와주는 자동프록시검색 우회 프로그램인 ‘울트라 서프(Ultra Surf)’의 경우, 인터넷이 위기에 처한 1월 27일에는 1일 페이지뷰(pageviews)가 780만 번으로 급증하기도 했으며, 트위터의 30만 개 트윗의 해시태그만을 분석하여 도시 내에서의 상황변화를 동영상화면으로 분석하여 제공한 ‘하이퍼시티즈(HyperCities)’ 프로젝트도 SNS의 촉매 기능을 했다.

이와 같이 정보생산의 보조 역할 내지는 정보 생산 자원을 제공하는 융합 네트워크의 경우 서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는데 중동혁명 발생 후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융합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슬람 지역의 민주화를 앞당기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3) 집합적 여론 형성 네트워크 단계

마이크로 블로그의 소셜 네트워크화 확산과정과 융합네트워크에 의한 정보의 확대와 더불어 또하나의 의미있는 네트워크 확산 단계는 집합적 여론형성의 단계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용 통한 집합여론의 형성에 더하여 페이스북 그룹을 통한 의견의 결집은 SNS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의견결집 매체라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 그룹이나 구글 ‘모더레이터(moderator)’ 같은 서비스는 사용자 결집과 토론을 통해 의제를 생산한다. 페이스북 그룹은 수십만 명을 응집시키고 실제 집회일시나 장소, 방법 그리고 대통령 퇴진 등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의제를 생산하여 온라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와 같은 새로운 집단행동 채널로 부상하였다. 페이스북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 운동가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고, 해당 페이지에서 ‘좋아요(like)’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온라인이 아닌 실제 세계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 것이다(Gaudin 201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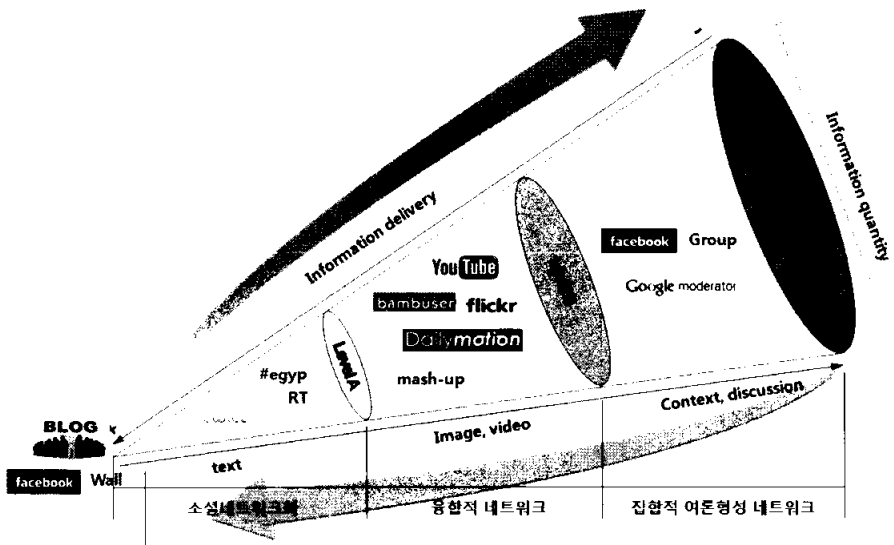
튀니지의 경우 튀니릭스와 같은 정부 부패 폭로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집단지성에 의한 정보공유의 커뮤니티를 운영하였으며, 블로거들의 행동강령을 결집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다. 2011년 2월 13일 구글의 임원 고넬이 구글의 모더레이터 서비스에 개설한 ‘이집트 2.0,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Egypt 2.0, What does we need? What are our dreams?!)라는 토론¹⁵⁾에는 40,126명이 51,137개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1,380,270번의 투표를 했다. 또한 블로그 포털사이트인 '미디이스트유스'에는 3만 5천 명이 참여하여 45,300건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교육이나 내무부 개혁으로 수렴되었으며, 새로운 정책에 이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높았다.

4) SNS를 통한 매개정치의 네트워크

이 세 가지 단계는 이념형이며 차례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네트워크 내에서 연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SNS 생태계(ecosystem)의 입체형을 단면으로 자르면 세 네트워크의 중층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구성과정은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전개된다.

<그림 5> 좌측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의 담벼락 등은 일종의 정보보관소와 같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 층위 네트워크의 구성과정인데, 먼저 트위터의 해시태그와 RT에 의해 매개되는 소셜 네트워크화 단계에서는 정보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생산되고 확산된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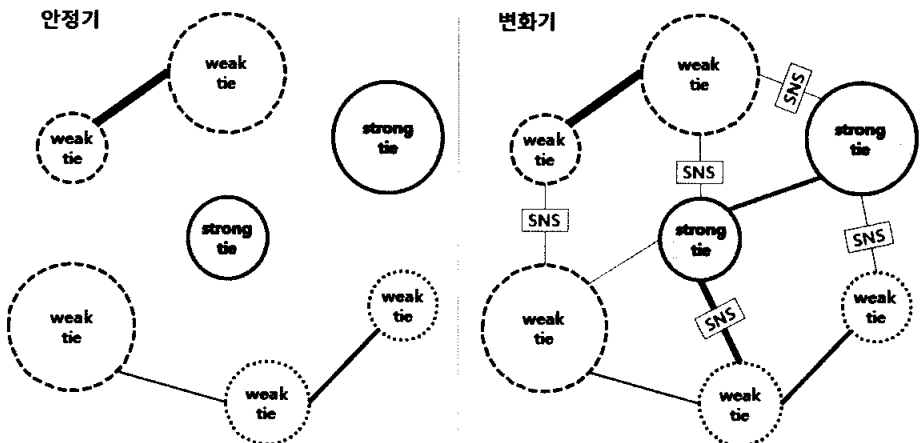
<그림 5> SNS를 통한 매개정치 구성 과정

15) 인터넷 상(<http://www.google.com/moderator/#16/e=581e0>) 열람 가능.

음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모바일간의 융합적 네트워크 단계에서는 유튜브, 플릭커, 데일리모션, 밤유저 등에서 동영상이나 이미지와 트위터의 메시지가 결합하면 일종의 이슈 매개 현상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는 행위자와 행위자의 매개도 생산되고 그 결과 집합적 여론형성의 네트워크 단계도 생성된다. 의견결집이 가속화되면 국면 1이 국면 2로 매개되는 전환의 과정도 발생한다.

한편, <그림 5>의 전체 과정은 매개가 일어나는 속도에 따라 좌우의 폭이 줄었다, 늘었다 변화할 수 있다. 즉 매개속도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림 5>의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될 것이고, 일상공간 정도의 안정적인 매개속에서는 <그림 5>의 폭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또한 끊임없이 순환하며, 순환과정에서 정보의 양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급변기의 매개정치 네트워크는 그 내부에서—앞서 글래드웰의 약한 유대에 대한 비판을 평가한 것처럼—SNS를 통한 매개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구성된다(<그림 6> 참조). 즉, 안정기에는 SNS의 약한 유대가 상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급변기에는 SNS의 매개도가 높을수록 낮은가에 따라 강한 유대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정기에는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SNS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확산하고, 매개하고, 의견을 결집하겠지만, 급변기에는 어디라도 자신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일종의 핫라인을 찾는 것처럼) 가장 강한 SNS로 찾아가 더욱 강하게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으로는 첫째, 매시업과 연동된 속보성을 들 수 있다.



<그림 6> 안정기와 변화기의 네트워크 형태에 대한 개념도

콘텐츠의 융합을 활용하여 상황변화를 신속하게 알려줄 경우 일반적인 텍스트에 비해 정보전달 효과는 매우 크다. 단지 텍스트와 이미지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의견이 덧붙여져 있는 동영상, 이미지를 파노라마처럼 이어 스토리를 구성한 콘텐츠, 속보와 속보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다양한 집단지성의 산출물들은 매시업과 연동된 속보성이라는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존 미디어 또한 언론, 방송의 분리된 형태가 아닌 융합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데, SNS에서는 이와 같은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의 융합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의 자발성이다. 혁명이라는 과정이 어차피 제도적으로 양성되거나 공식적인 의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SNS가 사회운동에서 가장 자유롭고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사용자들의 자발성에서 기인한다. 즉, SNS에서 사용자의 정체성과 견해가 표출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흔히 기술로 사회를 형성한다는 기술결정론에서 도외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 노드(node)의 자발성이 연계되어 거대한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의 매개성이다. 이 글의 중심 주제로서 SNS는 혁명의 독립변수나 별 것 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과정을 상승시키는 촉발적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처럼 정부가 지나치게 네트워크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유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SNS가 유일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그룹에서 단지 시민의 선호만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를 집단행동으로 전환시키고, 구글의 모더레이터에서는 혁명 이후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의미있는 현실화 과정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매개기능이 사회변화의 동인이라는 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 정부의 네트워크 통제전략과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소통전략

정부에 의한 규제는 앞부분에 제시한 것과 같은 네트워크 안의 다이내믹스와는 전혀 종류가 다른 ‘의도와 강제’라는 속성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창발성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매개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네트워크 규제는 주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차단과 상시적인 정치적 내용 검열이라는 네트워크 통제전략과 정부 주도의 홍보와 피상이라는 네트워크 이용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1) 네트워크 통제 전략: 감시와 규제

첫째, 가장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거대한 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단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원은 2010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태에서 인터넷을 도중에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자산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보호법(Protecting Cyberspace as a National Asset Act)'을 추진하여 이미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집트 인터넷 차단 사태 등을 겪으며 다시 논란되어 이 법의 이름을 '사이버 보안과 인터넷 자유법(Cyber security and Internet Freedom Act)'으로 바꾼 바 있다.¹⁷⁾

2011년 1월 27일 이집트 정부의 인터넷 차단은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텔레콤 이집트의 인터넷망 차단에서 시작하여 증권거래소가 사용하는 망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어놓았던 누어 데이터 네트워크(Noor Data Network)를 차단하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¹⁸⁾ 그러나 '무바라크를 망가뜨린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무바라크의 무지'라는 모로조프의 평가처럼 정보사회가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하는 현재 네트워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실용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더 큰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Morozov 2011/2/19).

다음으로, 그렇게 차단한 네트워크 내에서 정치적 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관련 인물에 대해 일벌백계식의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방법으로¹⁹⁾ 이는 서구의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범위와 정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²⁰⁾ 카타르의 경우 건강 콘텐츠 봉쇄, 시리아는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을 차단,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에 서버가 있는 웹사이트를 봉쇄, 지역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당국의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데, 이들 국가의 통제는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안보, 문화적 규범과 종교적 가치의 보존, 음란 콘텐츠 차단을 통한 아동보

16) 국가별 인터넷 통제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칼라실과 테일러(Kalathil and Taylor 2003); 모로조프(Morozov 2011) 참조.

17) 이 법안은 '인터넷 킬 스위치(Kill Switch)' 법안이라고도 불리운다.

18) 누어의 차단은 31일에 이루어졌는데, OECD의 2011년 2월 3일 발표에 의하면, 이집트의 인터넷 차단은 이집트 경제에 9천만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19) 일벌백계식의 처벌은 주로 수십 년의 투옥과 사형 등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 회사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호 등의 목적을 표방하지만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수단 역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픈넷 이니셔티브(ONI: OpenNet Initiative)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18개국 가운데 14개국에서 인터넷 통제 선별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일반적 콘텐츠보다는 정치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²¹⁾ 국경없는기자회(RSF) 역시 인터넷의 적을 매해 발표하는데 ONI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들의 2010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튀니지의 언론자유지수는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164위이며, 이집트의 언론 자유도는 169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46위이다. 또한 이들 국가는 검열시스템을 매우 잘 갖춘 인터넷의 적(敵) 15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혁명 과정에서 혁명 이전의 시기에는 네트워크 통제 전략으로서 검열과 규제가 이루어졌고, 혁명 초기까지는 특히 피싱 전략 등에 의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졌다. 이어서 심화시기에는 인터넷 차단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혁명 이전 시기의 검열의 경우는 결국 혁명의 도화선을 정부가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튀니지는 2002년 6월 5일 온라인 신문인 튠진(TUNeZINE)의 설립자 주하이르 야하위(Zouhair Yahyaoui)의 체포를 시작으로 언론방송인, 인터넷 그룹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열과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실시해왔으며, 대안언론의 선거운동 또한 금지해왔다. 특히, 튀니지 정부는 2005년부터 데일리모션과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엄격히 규제해왔는데, 이는 튀니지의 활동가들이 높은 IT 활용수준으로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ISP 서비스가 아닌 인물에 대한 처벌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집트 정부가 2011년 1월 28일 구글의 중동지역 책임자 와엘 고님(Wael Ghonim)을 체포한 일이다.

2) 네트워크 이용전략: 피싱과 온라인 선전

둘째, 네트워크 이용전략은 온라인 선전(online propaganda)과 피싱 방식이다. 앞의 두 가지 방식이 네트워크의 차단과 통제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선전 방법은 네트워크의 잇점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러시아나 중국은 정부가 블로거를 고용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네트워크상의 입소문 효과(buzz marketing)를 이용하여 '우마오당(五毛黨)²²⁾ 등이 정

21) ONI는 언론자유를 위한 서구 대학의 연구연합체로서 세계 각국의 인터넷 통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22) 우마오당은 댓글 하나당 0.5위안을 받는 중국공산당의 온라인 선전부대이다.

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민족간 화합을 해치는 등의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올 경우 즉각 반대 댓글을 올리도록 하는 등의 온라인 선전을 사용한다. 정부의 피싱은 튀니지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정부가 시민운동가들의 이메일, 야후, 핫메일, 페이스북의 로그인 계정을 피싱 공격하여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야예 사이트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정부와 시민간 갈등으로써 사이버 전쟁(cyberwar)으로까지 묘사되었다.

IV. 결론: 민주화 구현 조건으로서의 스마트한 물결(smart wave)

이제까지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소셜네트워크화융합네트워크·집합적 여론형성의 네트워크라는 세 층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정부의 네트워크 통제와 이용전략을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이번 중동혁명을 통해 알 수 있는 'SNS 매개정치'의 중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중동혁명과 SNS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총평을 하자면, 이번 혁명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실업률 30%, 물가상승률 20%, 독재 30년의 수치가 혁명의 임계점이라고 파악하거나 도구적 관점에서 농업혁명(제1의 물결), 산업혁명(제2의 물결), 정보혁명(제3의 물결)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구 중심적이고 사실의 동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관점이다. 그것보다는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스마트한 물결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국제적 네트워크의 관심과 지원, 종합적인 SNS 네트워크의 발생 및 이 모든 과정의 매개로 인한 촉진효과라는 스마트한 물결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의제집약의 기능을 수행하며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모든 불만이 혁명이나 폭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의 심화로 인해 불만이 누적되고, SNS가 변화의 임계점(tipping point)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 SNS는 독립변수라기 보다는 매개변수으로써 혁명을 촉발시키고 심화시키는 순간에 촉발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였다. 통상적으로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가 공존하는 네트워크 속성이 혁명이라는 정치적 급변의 사건 속에서는 강한 유대로 강력하게 전환되어 표현된 것

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사회적 원자(social atom)²³⁾로서의 시민이 강한 유대에 의해 사회에 반응하면서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즉, 기술매개의 관점에서 네트워크는 직접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기 보다는 사회변화의 거대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이 이후에 남는 문제는 SNS로 촉발되는 변화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가 혹은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일텐데 마치 정책형성을 직접적으로 이루는 것과 같이 의미있는 세력의 조직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ICT 사용에 비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부의 네트워크 통제 전략은 비효과적이기도 하거나와 무엇보다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수동적 대응이다. 또한 그러한 통제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저항하게 만드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제도나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계기를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정기에 네트워크가 이완되고 급변기에 네트워크가 축약적이면서도 빠르게 구성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완기에 정부는 네트워크 안에서 신문이나 방송 통제와 같은 홍보나 여론조작을 할 수 있지만 급변기의 네트워크에서 정부는 하나의 행위자로서의 노드, 그 이상이기 어렵다. 즉, 여론의 빠른 전환과 네트워크의 확장은 또다른 정치의 장(場)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열린 네트워크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존 방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동 혁명 이후 튀니지와 이집트 외의 인근 국가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도 혁명과 변혁의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으며, 가깝게는 북한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을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혁명의 공(功)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혁명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그것이 정치·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반면교사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인 인터넷과 SNS의 네트워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23) 뷰캐넌은 사회물리학의 관점에서, 물리적 원자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지만 사회적 원자는 변하고 적응하며 사회조직을 알아채고 거기에 반응한다고 주장한다(Buchanan 2007, 61).

24) 피터 오디토레는 소셜 미디어의 이와 같은 증폭 효과를 음악에서 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에 비유하여 '크레센도 효과(Crescendo Effect)'라고 불렀다(Auditore 2011/3/15).

투고일 2011년 3월 8일

심사일 2011년 3월 14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2일

참고문헌

- 김유향·조희정. 2011.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과 SNS의 역할.” 『이슈와 논점』 192호(1월 31일).
 _____. 2011. “이집트의 정치격변과 인터넷 차단: 정치 효과.” 『이슈와 논점』 193호(2월 1일).
- 김은규. 2005. “초국적 사회운동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연구: 독립미디어센터(IMC) 네트워크의 구조 및 운영원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254-282.
- 백옥인. 2001. “네트와 사회운동.” 홍성욱·백옥인 편.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서울: 창작과 비평사. 48-68.
- 윤영민. 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출판부.
- 정연정. 2000. “미국 시민이익집단 활동과 인터넷 이용.” 『한국언론학보』 34집 4호. 337-358.
- 이은주. 2011.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트위터: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 『언론정보연구』 48권 1호, 29-58.
- 조희정. 2011. “SNS 확산의 의미와 쟁점 및 과제.” 『이슈와 논점』 204호(2월 28일).
- 홍일선. 2011. “모바일 혁명이 아프리카를 바꾼다.” 『LGERI 리포트』(3월 30일), 2-17.
- 황용석·김재영·정연정. 2000.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정치환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Abu-Samura, Haisam. 2011. 2. 3. “Expulsion and Explosion: How Leaving the Internet Fueled Our Revolution.” Motherboard.Tv.
- Auditore, Peter. 2011. “The Social Media Crescendo Effect.” <http://stumbleupon.com> (검색일: 2011년 3월 16일)
- Buchanan, Mark 저. 김희봉 역. 2010. 『사회적 원자』. 서울: 사이언스북스.
- Coldeway, Devin. 2011. “People, Not Things, Are the Tools of Revolution.” <http://techcrunch.com>.
- Evans, Mark. 2011. “Egyptian Crisis: The Revolution will not be tweeted.” <http://blog.sysomos.com>.
- Gaudin, Sharon. 2011. 3. “이집트 무바라크 퇴진과 소셜 네트워크의 역할.” *IDG World Tech. Update*. 5-6.
- Gladwell, Malcolm. 2010. “Small Change.” *The New Yorker*.

- Goldfarb, Jeffrey C. 2006. *The Politics of Small Things: The Power of the Powerless in Dark Tim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smith, Jack · Wu, Tim 저. 송연석 역. 2006.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 권력전쟁』. 서울: NEWRUN.
- Hopkins, Curt. 2011. “Protesters use Google Moderator to Brain Storm Egypt’s Future.” *ReadWriteWeb*.
- Howard, Philip N. 2011. *The Digit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Information Technology and Political Islam*. Oxford University Press.
- Kalathil, Shanthi · Boas, Taylor C. 저. 고경민 · 이지용 · 장성훈 · 김일기 · 박성진 역. 2009. 『권위주의적 지배와 인터넷,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 Mejias, Ulises. 2011. “The Twitter Revolution, Must Die.” <http://blog.ulisesmejias.com>.
- Morozov, Evgeny. 2011. *The Net Delusion: The Dark Side of Internet Freedom*. Public Affairs.
- _____. 2011. “Smart Dictators Don’t Quash the Internet.” *The WallStreet Journal*(February 19).
- Nye, Joseph S. Jr. 2011. “New World Order.” *The New Republic* (February 18).
- Rhoads, Christopher. 2011. “Technology, Poses Big Test for Regimes.” *The WallStreet Journal* (February 12).
- Shapiro, Samantha, M. 2009. “Revolution, Facebook-style.” *The NewYork Times* (January 25).
- Shirky, Clay. 2011. “The Political Power of Social Media.” *Foreign Affairs*.
- Watters, Audrey. 2011. 1. 13. “HyperCities Maps and Archives the Tweets from Cairo Jan. 25.” *ReadWriteWeb*.
- Zuckerman, Ethan. 2011. 1. 14. “The First Twitter Revolution?.” *Foreign Policy*.
- _____. 2011. “Tunisia, Egypt, Garbon? Our Responsibility to Witness.” <http://www.ethanzuckerman.com>.
- “2010-2011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tests.” Wikipedia(검색일: 2011년 3월 2일)
- “2011 Egyptian revolution.” Wikipedia(검색일: 2011년 3월 2일)
- “Tunisian Revolution.” Wikipedia(검색일: 2011년 3월 2일)
- CIA. 2011. 1. 11. *The World Factbook, Africa: Egypt*.
- CIA. 2011. 1. 11. *The World Factbook, Africa: Tunisia*.
- CNN. 1. 13. “Tunisian protests fueled by social media networks”
- CNN. 2011. 2. 11. “Egypt revolution 2.0 Social media’s role”
- PBS. 2011. 1. 31. “In Egypt, Social Media Acts as Protest Catalyst Despite Government Meddling”

PBS. 2011. 2. 14. “Debate Continues Over Social Media’s Role in Egypt’s Revolution.”

The New York Times. 2011. “Middle East” <http://www.nytimes.com/interactive/world/middleeast/2011-spreading-revolutions.html#intro>

Time. 2011. “The Middle East in Revolt” <http://www.time.com/time/specials/packages/0,28757,2045328,00.html>

Al Jazeera <http://english.aljazeera.net>

Democracy Now! <http://www.democracynow.org>

Ethan Zuckerman <http://www.ethanzuckerman.com>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al Islam project <http://pitpi.org>

Internet World Stats <http://www.internetworldstats.com>

OpenNet Initiative <http://opennet.net>

Reporters Without Borders <http://en.rsf.org>

TechCrunch <http://techcrunch.com>

YouTube ‘CitizenTube’ <http://www.citizentube.com>

ABSTRACT

2011 Middle East Citizen Revolu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SNS

Hee Jung Cho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This article occurred in 2011 in Tunisia and Egypt, the Middle East the center of the civil war politics of the SNS(Social Network Service) are mediated argumentation. Mediated functions in normal conditions and rapidly changing political, such as revolution because unlike, SNS, and the agenda for collective action of the explosion catalyst platform is a role. The role of SNS in the Middle East for the revolution and the uselessness and the necessity been proposed and debated, both the two positions appear in the course of political change mediated by a lack of an argument for, as a result, this leads to needless theory and SNS disparaged.

Therefore, this article about the role of SNS in the process of revolution in the Middle Eas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NS social networking, converged networks, forming a collective opinion of all three layers of overlapping information in the agenda mediated by actors in the network a strong ties amplify emphasizes. The purpose is also important as a means of political, SNS means limited to just the instrumental analysis center of the process rather than as a useful vehicle for political change by evaluating the micro-political analysis of the SNS is to emphasize the need.

Thus, SNS is not a condition of revolution, a revolution in terms of acceleration, because the conditions for political change can be an important unit of analysis, SNS on the role of the mediator as a smart wave and the need to focus on this 'SNS in mediating Politics' would be a key conclusion.

Keywords: Middle East Revolution, SNS, Tunisia, Egypt, mediated politics